

조금(彫金)

조금이란 금속 표면을 타각해서 장식을 더하는 기법으로 조각, 타출, 나나코우치, 상감 등 다양한 특수 기법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을 포괄하는 조금은 1955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조금 기법은 야요이 시대(기원전 300년~기원후 300년)에 아시아 대륙에서 전래되어 일본의 야금기술 발달과 함께 제기나 일상용품의 장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에도 시대가 끝나고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신정부의 대도금지령과 금속가공의 기계화로 인해 조금의 목적은 점차 순수예술로 변화하면서 금속공예 장인들 역시 그들의 기술을 예술품 제작에 응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공예품은 해외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에는 선조, 부조, 투조 등 전문 기법이 있는데, 특히 이시카와현과 관련이 깊은 기법은 단단한 지금(地金)에 금이나 은 등의 부드러운 금속을 채워 넣어 장식을 하는 상감 기법입니다. 이시카와현에는 그 전신인 가가번에서 유래한 가가상감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가가상감의 특징 중 하나는 지금에 다른 금속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지금에 넣을 문양부분은 표면보다 바닥쪽을 넓게 파냅니다. 이렇게 만든 홈에 금속을 두드려 넣으면 금속이 홈 내부에서 퍼지면서 지금 속에 단단히 들어가 고정됩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는 가가번이 자랑했던 화려하며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등자(안장 양옆에 매달아 발을 걸 수 있는 도구)를 비롯해 다양한 조금 기술이 활용된 작품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